

디지털 사진행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협업적 자기민속지학 연구를 바탕으로

김지영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수료*

주형일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 연구는 현재의 디지털기술과 연결된 사진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협업적 연구이며 동시에 자기민속지학 방법을 이용해 연구의 자기 치료적 효과와 지식의 권력관계를 엿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두 연구자는 디지털 카메라, SNS,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미디어를 이용하는 사진행위가 갖는 의미를 개인의 정체성 구성, 개인적 삶의 다큐멘터리 만들기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그 결과, 디지털 사진을 다큐멘트가 아닌 아카이브로 볼 수 있으며 디지털 사진행위를 ANT의 관점에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변화의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KEYWORDS 셀카, 아카이브, 정체성, 다큐멘터리, 행위자-네트워크이론(ANT)

* jiyoung999@ynu.ac.kr

** spdm@ynu.ac.kr, 교신처자

1. 들어가며

형일 이 연구가 시작된 것은 2011년 말이다. 당시 대학원 강의를 할 때 기말 보고서를 받았는데 그중 김지영 학생이 자신의 셀카에 대해 분석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 내용에 흥미를 느낀 나는 지영에게 그 내용을 좀 더 발전시켜 볼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고 그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후 지영은 연구를 진행시키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면담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나에게 조언을 구했다.

연구 주제에 접근하고 내용을 해석해 가는 과정에서 나는 지영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게다가 교수로서의 내 지위와 지식이 지영의 생각을 압도하면서 사실상 논문의 내용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존의 전형적인 논문 글쓰기 방식을 사용한다면 이런 차이는 가려질 것이고 저자는 두 명이지만 실제로는 익명의 단일한 목소리만이 논문을 지배할 것이 분명했다. 나는 익명의 목소리 뒤에 숨는 대신, 두 사람의 다른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지영과 나의 상호작용을 대화형식으로 재구성해 논문을 작성하기로 했다. 나는 이 방식이 지영과 나의 목소리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면서 교수와 학생 사이의 연구 협업에 지위와 지식에 따른 권력이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했다. 또한 대화방식의 글은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읽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지영이 이메일과 논문초고 등에 적어 보낸 질문들과 내 답변들을 정리해 원고를 작성했고 작성된 원고를 다시 지영에게 보내 내용을 수정, 첨가하도록 했다. 몇 차례 원고가 오가는 과정을 거쳐 이 논문은 일반적인 논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글쓰기 형식을 갖게 됐다.

따라서 이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디지털 카메라의 일반화에 의해 나타난 대표적 현상인 셀카찍기와 인터넷 기반 SNS를 통한 사진의 공개와 공유가 가진 사회문화적 의미를 20대 후반 여성의 개인적 성찰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지영은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성찰하면서 그 성찰로부터 자신의 행위가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도출하려 노력하고 또 다른 연구자인 나는 지영의 질문에 답하면서 그 의미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밝혀가는 공동 작업을 했다. 이 논문은 이 과정을 대화형식으로 정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수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가 둘의 공동연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결국 이 연구는 20대 여성의 사진행위에 대한 일종의 자기민속지학이면서 동시에 교수와 학생의 협업적 연구행위에 대한 자기민속지학이 된 셈이다. 이 논문은 먼저 지영이 자신의 사진행위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기술하고 그 행위의 의미를 두 사람이 대화를 통해 찾아가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2. 지역의 이야기

나는 여기에서 내 스마트폰이나 SNS계정에 정리해 둔 사진들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내가 그 사진들을 왜 찍었는지, 왜 SNS계정에 업로드해 두었는지, 어떻게 사진들을 분류하고 정리했는지 등을 분석하면서 디지털 사진의 생산과 SNS를 통한 사진의 이용이 갖는 의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볼 생각이다.

1) '싸이월드'와 사진찍기

내가 직접 사진을 찍기 시작한 것은 '싸이월드'(이하 '싸이') 때문이다. 나는 대학입학 후 처음으로 내 컴퓨터를 가지게 됐다. 집에 있는 컴퓨터를 두 명의 언니들과 같이 사용해야 했던 시절과는 다르게 '내 컴퓨터'는 싸이를 이용하는 개인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

나에게 있어서 싸이는 사람들과 컴퓨터로 사진을 통해 소통한 첫 채널이었다. 신입생이던 나는 같은 학번 동기들, 선후배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싸이를 시작했다. 그 시절 일명 '싸이질'은 안하면 뒤처진다고 느끼는 유행 중 하나였다. 싸이 열풍은 그 이전의 블로그나 클럽이 제공하던 즐거움과는 색다른 공간을 제공했다. 그것은 온라인 공간에 나의 작은 집을 짓는 일이었다. 사진첩과 방명록 기능은 지금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및 카카오톡 스토리의 조상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나는 싸이를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와 휴대가 편한 소형디지털 카메라에 연계된 싸이는 당시 내 일상적 사진활동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나는 미니홈피에 올릴만한 괜찮은 사진을 찍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사진을 찍고 메모리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진을 업로드하고 크기 등을 편집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내가 접한 첫 디지털 카메라는 산업디자인을 전공하는 언니가 사용하던 카메라(ixus 600)였다. 처음 이 카메라는 언니가 작품사진 찍을 때 사용하던 카메라이기에 전문가만 써야 될 것 같은 물건처럼 느껴졌다. 사진을 찍고 사진관에 가서 인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모니터로 사진을 보는 것이 웬지 첨단기술 같고 멋져 보였다. 하지만 언니가 쓰는 카메라를 자주 빌려서 쓰진 못했다.

곧 '푹딱이'라고 불리는 작은 소형 디지털카메라가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내게 언니는 캐논의 소형 디카(ixus 800)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줬다. 2GB라는 메모리 용량에 따라 촬영가능 사진수가 제한을 받았지만 필름카메라에 비한다면 사실상 큰 불편 없이 많은 사진들을 찍을 수 있었다. 실패해도, 내 마음에 들게 나오지 않아도, 친구의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도, 눈을 감아도 다시 찍을 수 있었다. 같은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수없이 찍어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는 2GB의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싸이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진들을 촬영하고 미니홈피에 분류, 저장하기 시작했다. 사진을 찍고 선별하여 업로드 시킨 후 댓글과 스크랩을 이용하여 일촌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의 즐거움은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즐거움이었다. 그리고 싸이는 내 삶의 새로운 기록 문화를 만들었다. 2004년 4월부터 2008년 3월 마지막 포스팅까지 댓글과 방명록을 통해 새로운 대학 선후배들과 관계를 유지했으며 연락이 끊기거나 뜸했던 초중고 동창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안부를 물을 수 있었다. 미니홈피에 기록돼 있는 당시 친구들과의 짧은 대화와 내가 썼던 글과 올린 사진들을 보면 나의 고민, 생각, 좋아했던 것들, 나의 첫사랑 등 내 짧은 개인사가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이것은 많은 친구들이 싸이를 떠났음에도 내가 아직 싸이의 미니홈피를 지우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싸이는 그 시절의 나를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미니홈피의 내 사진들

미니홈피에 처음 올린 사진은 내 자신의 사진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퍼 온 클립트, 고흐, 달리 등이 그린 그림들이었다. 내 미니홈피의 경우, 내가 찍은 사진뿐만 아니라 인터넷 혹은 다른 친구의 홈피에서 스크랩해 온 사진이나 영상들이 많았다. 현재 내 미니홈피 사진첩에

표 1. 나의 싸이월드 사진첩 개요

사진첩이름	공개설정	설명	사진수
빨강달팽이	전체공개	개인 프로파일 사진 및 나를 표현하는 이미지	10
사막에서	전체공개	나의 밴드활동사진 및 공연관람 및 일상사진	59
그림을 보다가	전체공개	명화그림	37
하늘이다	전체공개	천체사진	10
*****	전체공개	좋아하는 스타사진	4
!!!!!!!!!!!!!!	전체공개	주로 스크랩해 온 포스팅	53
Yellow	전체공개	뉴욕에서 찍은 사진	101
금쪽 같은	전체공개	가족사진	22
비공개	비공개	나만 보고 싶거나 다른 폴더에서 옮겨와 더 이상 보이고 싶지 않은 사진들	61
일상으로의 초대	비공개	비공개 폴더와 비슷함, 일상 사진	63
?	비공개	첫사랑과 관련된 사진	14

는 총 11개의 폴더가 있으며 3개의 폴더는 비공개로 되어있다. 마지막 사진 업로드는 2008년 3월에 이뤄졌다. 싸이 사진첩은 나에게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열어볼 수 있는 나만의 혹은 친구와 공유하는 사진일기였고 첫 “유비쿼터스 사진첩”이었다. <표 1>은 미니홈피의 사진첩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싸이 사진첩을 분석하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알게 됐다. 첫째, 싸이의 사진 업로드는 2004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07년 5월 뉴욕으로 어학연수를 가기 전까지 약 3년간의 대학시절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간간히 열어보는 옛날 사진첩으로 서만 사용된다.

둘째, 비공개 폴더가 3개나 됐다. 싸이에 비밀폴더를 만들고 아무도 안 보는 폴더에 사진을 올리고 나만 들어가서 보는 나만의 사진첩 기능이 나는 좋았다. 스무 살 여름을 눈물로 보내게 했던 가슴 아팠던 첫사랑과의 사진 한 장과 그와 관련된 사진들을 올려놓은 “?” 폴더는 싸이의 비밀폴더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보여준다. 미니홈피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누기 위한 사진들을 주로 전시하는 공적 공간이지만 동시에 소중한 사진을 몰래 저장하는 개인적인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다른 비공개 폴더들은 처음에는 공개된 사진이었지만 시의성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전환된 경우이다. 지금은 전시할 만한 큰 가치가 없는 사진들이지만 일종의 기록으로서 남겨놓은 것이다.

셋째, 내 예상과는 달리 내가 찍은 셀카는 10장이 채 되지 않았다.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기는 했지만 나는 셀카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다. 얼굴만 예쁘게 찍는 셀카를 핸드폰으로 찍을 수는 있었지만 남에게 보여줄 자신은 없었던 것 같다.

넷째, 2008년 유학도중 뉴욕에서 찍은 사진을 하루에 101장이나 올렸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싸이 포스팅이었다. 3학년을 마치고 뉴욕으로 어학연수를 가기로 했을 때 마치고 다시는 싸이를 하지 않을 것처럼 이제껏 찍은 사진들과 싸이에 업로드 된 사진 중 더 오래 남기고 싶은 사진들을 긴 시간을 들여 신중히 골라 사진관에 가서 인화했던 것이 생각한다. 그것은 나름 완벽한 사진첩에 대한 나만의 예의 표명이라 생각했다. 싸이가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내가 사진들을 다 삭제하기 전까지 인터넷이 연결된 곳에서는 언제든지 내 싸이 사진에 접근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인화해서 손에 잡히는 사진으로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은 그 사진들에 대한 내 애착이 컸으며 사진의 완성도도 높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완성도 높은 사진이란 내가 의도한 대로 나온 사진을 말한다.

뉴욕으로 어학연수를 가면서 싸이를 접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시점에서 스스로 과장된 나를 쫓아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즘 흔히 거론되는 SNS 피로감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때 나는 싸이에 대한 누적된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 피로감의 원인은 무분별한 스크랩으로 서로 비슷한 포스팅을 업로드한다는 것, 인간관계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정체되고 폐쇄적이 된다는 느낌, 스타벅스 커피와 싸이질로 대변되는 당시의 “된장녀” 담론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뉴욕생활이 2년 쯤 접어들었을 때 사진 좀 올리라는 친구들과 가족의 압박에 거의 하룻밤을 꼬박 자지 못하고 사진을 업로드시켰다. 모두가 한번쯤 와보고 싶어 하는 뉴욕에서의 2년간의 생활을 한꺼번에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사실 나의 유학생생활은 흔히 뉴욕커란 말로 대변되는 화려하고 자유로운 생활이 되지 못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도 해야 했던 힘든 유학생생활이었다. 타임스퀘어, 브라이언파크, 할로윈축제, 맨하탄 거리에서 간간히 찍은 내 사진을 미니홈피에 올리고 나서 나는 내가 진정한 내 안부를 궁금해 하는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가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내가 싸이의 사진업로드를 그만 둔 직접적 이유가 됐다.

3) 페이스북과 트위터

2010년 3월 귀국했을 때 한국은 스마트폰에 열광하고 있었다. 싸이 미니홈피의 열기는 식었지만 그 빈자리를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대신하고 있었다. 나는 귀국 후 곧바로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다. 첫 번째 사진 업로드는 프로필 사진이었는데 내 사진이 아닌 다른 이미지를 하려고 했으나 실제 얼굴 사진으로 하는 게 좋다는 주변의 조언으로 밝게 웃고 있는 얼굴 사진을 선택했다. 2014년 4월 현재 나는 트위터로 총 369명을 팔로우하고 있으며 218명이 나를 팔로잉하고 있다. 지금까지 내가 쓴 트윗수는 152개다. RT를 주로 하고 대부분 다른 사람의 글을 읽기만 한다. 내가 트위터에서 업로드한 두 번째 사진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진중권, 조국과 맞팔을 하기 위해 보낸 선거투표 인증샷이었다.

페이스북 계정은 교환학생이었던 2009년에 만들었다. 학교 복도에서 학생들이 공간 시간에 컴퓨터 앞에 서서 페이스북을 하는데 예전에 내가 싸이를 하던 모습을 연상하고 미니홈피의 향수를 느꼈다. 페이스북 덕분에 미국친구들과도 예전 미니홈피를 이용한 것과 비슷한 교류를 할 수 있겠다 싶어 계정을 만들었다. 현재 페이스북 친구는 366명이고 사진첩의 사진은 100장이 되지 않는다.

나에게 페이스북은 친구뿐만 아니라 교수들이나 전문가들과 연결된 아주 공적인 공간이다. 그래서 싸이가 주던 편안함은 없다. 그 대신 페이스북에서는 총 6개의 클럽에 가입돼 있는데 그 곳에 사진을 종종 업로드 시킨다. 싸이 이후 흩어진 여고동창생들을 만나기 위해 만든 경주여고동창생들을 위한 클럽, 친한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만든 세 개의 클럽, 대학 때 밴드동아리의 클럽, 또한 대학원연구실 사람들과의 클럽도 있다. 비공개로 설

정을 해놓으면 다른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자유롭게 소수의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점이 좋다.

미니홈피 이후 나는 SNS계정에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에 소극적이 됐다. 그런 이유로 나는 때론 내 삶이 충분히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불안을 느낀다. 게다가 나를 홍보하고 어떤 점에서는 필요이상 사회적이 돼야 하는 SNS 활동의 속성에 역행해 나는 점점 닫힌 사람이 되어가지 않나하는 기분도 든다.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늘 친구가 많았는데도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 친구들이 많은 친구를 보면 이상한 패배감이 들기도 하고 자신의 이야기와 사진을 자유롭게 올리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다. 싸이를 그만둔 여고 친구들과 페이스북에 클럽을 만들어 사진을 올리고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이런 나의 불안감이나 패배감에 대한 반작용일 수 있다. 온라인에 나의 기록을 남기고 친구들과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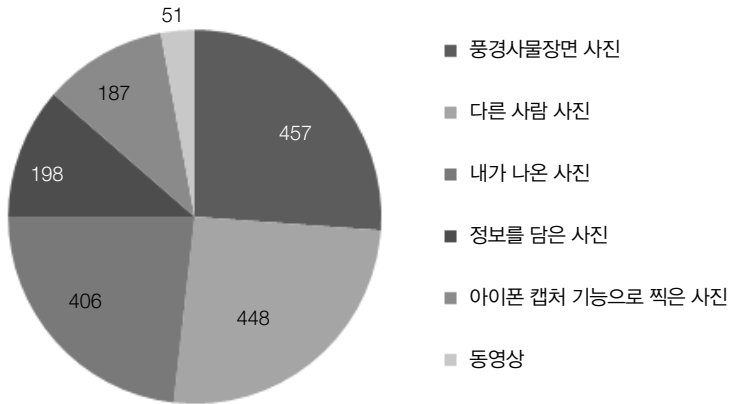
4) 내 아이폰의 디지털 사진

나는 뉴욕 어학연수를 마치고 마지막 대학 4학년을 알바니 뉴욕주립대에서 교환학생으로 보냈다. 포토 저널리즘 수업에 필요해서 캐논 550D를 하나 구입했다. 550D가 가진 좋은 화질, 누를 때의 셔터감, 이것저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 등이 마음에 들었기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사진을 배우고자 했다. 하지만 DSLR 카메라는 무겁기 때문에 휴대가 불편해 카메라를 들고 나가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게다가 주변의 친구들이 값비싼 장비들을 사는데만 열을 올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힘들여 찍은 사진과 대충 찍어 포토샵으로 수정하면 더 그럴듯해지는 사진을 보면서 시시하다는 생각도 했다. 예전에 쓰던 주머니 속에 들어가고 그림감이 좋던, 내 캐논 소형 디카가 그리워졌다. 그러던 중 소형 디카를 대체할 만한 기능을 가진 아이폰이 등장했다.

현재 내 삶에 대한 사진적 기록은 SNS보다는 아이폰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다. 양질의 사진을 찍고 바로 보관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할 때 즉각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듯하다. 나는 2010년 9월부터 아이폰 이용자가 됐다. 2011년 12월 현재 내 아이폰 사진 폴더는 총 1696개의 사진을 담고 있다. 사진수와 일수로 나누어 보면 나는 아이폰 구입 후 15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장의 사진을 아이폰으로 찍은 셈이다.

1966개의 사진들은 여섯 부류로 나뉜다. 1) 내가 나온 사진, 2) 내가 없는 다른 사람 사진, 3) 풍경, 사물, 장면을 담은 사진, 4) 정보를 담은 사진, 5) 아이폰 화면캡처 사진(6) 동영상이다. <그림 1>에 보이듯이 내가 나온 사진은 406개, 다른 사람사진 448개, 풍경사물장면 사진 457개, 정보를 담은 사진 198개, 아이폰 화면을 캡처한 사진 187개이고,

그림 1. 아이폰에 저장된 사진 분류



동영상은 51개이다.

첫째, 내가 나온 사진에는 크게 1) 내가 직접 찍은 혼자 나온 셀카(237개)와 2) 다른 사람과 같이 찍은 셀카(54개), 3) 다른 사람이 찍어준 내가 나온 사진(114개)으로 나뉜다. 내가 직접 찍은 혼자 나온 셀카의 특징은 거의 혼자 있는 공간에서 찍은 사진들이란 점이다. 집, 연구실, 화장실, 계단, 거울, 화장대 거울 앞 등,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직접 얼굴을 중심으로 찍거나 창문이나 거울에 비친 상체 혹은 전신을 찍었다. 혼자 있거나 혹은 룸메이트 친구가 옆에 있거나 가족이 옆에 있거나 한 경우에 셀카를 찍은 것은 드물었다.

구도는 배경 없이 얼굴을 커다랗게 찍은 전형적인 사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헤어스타일, 다양한 표정들이 눈에 띈다. 이마가 넓어서 앞머리를 올리는 것이 약간 콤플렉스였는데 셀카에는 특히 이마를 잘리게 찍은 사진들이 많았고 파마를 했을 때, 색다른 머리 모양을 했을 때, 운동할 때 셀카를 주로 찍었다. 신체일부를 찍은 사진도 있는데 다친 다리 부위의 사진을 찍어놓은 사진은 내 인생의 사건을 기록하고자 한 것이었다. 아플 때 누워 있다가 찍은 사진, 연구실에서 늦게 집에 들어가면서 계단 거울에서 찍은 사진 등은 그날의 내 모습을 그대로 담고 싶어서 찍은 사진이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찍은 셀카의 경우, 같이 찍은 사람들은 가족, 친한 친구였고 이렇게 함께 찍은 경우는 레스토랑, 학회, 식당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찍은 것들이었다. 왜 혼자 셀카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찍으면서 사람들과 셀카 찍는 것은 부끄럽지 않게 찍을 수 있었던 것인가? 다른 사람이 찍은 내가 나온 사진은 학회사진과 트리아트전 보러갔을 때, 바닷가에서 친구가 찍어준 사진들이었다.

그림 2. 내가 혼자 찍은 셀카 중 일부



둘째, 정보를 캡처하기 위해 찍은 사진들이 있다. 아이폰으로 메모나 버스시간표, 책 표지, 도서관 일련번호 등을 사진 찍어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다. 특히 학회 갔을 때 파워포인트를 찍는다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검색한 다음 컴퓨터 화면의 일련번호를 폰으로 찍어 둔 것이 많았다. 메모한 것을 다시 찍어놓은 사진도 많았는데, 메모는 필요한 순간까지 잘 보관하기 어렵고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진으로 찍어 일종의 데이터 백업처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메모 사진들은 사용 후 지웠어야 하지만 대부분 지우지 않고 그냥 폰에 축적되어 있었다.

셋째, 아이폰 화면캡처 기능으로 찍은 사진들이 있다. 아이폰의 디지털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 디지털 영상으로 보관한 것이다. 아이폰으로 자주 보는 웹툰과 영어 단어를 외우는 어플인 Flashcard의 단어들을 찍은 사진들이 많았다. 또한 카톡이나 문자메세지 중 기억할 만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캡처해 뒀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라온 정보를 바로 검색해서 볼 수 없는 경우 사진으로 캡처한 후 나중에 컴퓨터로 검색해보는 식으로 사용한 것도 있다. 캡처기능을 이용한 보관은 영상으로 기록되는 문서로서의 디지털 사진의 새로운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예전 학창시절에 일기나 쪽지를 보관하는 습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진들은 실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넷째, 다른 사람 사진을 살펴보면 자주 못 보는 가족, 조카들 사진, 친구들 사진이 있고 내가 직접 찍지 않았지만 카톡으로 받은 친구사진도 있다. 특히 뉴욕에 있는 친구랑 오랜만에 스카이프 영상통화를 하면서 찍은 사진도 있다. 내 사진 다음으로 독사진이 많은 친한 친구의 사진은 모두 내가 찍은 것인데 웃기는 표정이나 친구가 예쁘지 않은 모습이라 생각되면 지워 주기도 했다. 친구와 나는 2년 가까이 같이 살고 있는데 그녀는 내가 자신의 예쁘지 않은 사실적인 모습을 찍는 것에 상당히 민감히 반응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 사진의 1/3정도는 가족들, 특히 조카들의 사진이 차지했다.

다섯째, 사물 풍경 장면 사진들 중에는 기억하고 싶은 것, 남기고 싶은 것, 아름다운 하늘, 나뭇잎들, 음식들, 소소한 것들을 담은 사진들이 있다. 예쁜 것뿐만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방의 모습을 찍은 사진도 있다. 내 친구의 치마, 나의 분홍 스카프, 친구동생의 바지들이 뒤엎혀 있는 방 사진은 우리가 같이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로 여겨져 보는 재미를 느낀다. 친구는 남들이 욕한다고 사진을 지우라고 하지만 나는 젊고 예쁜 모습뿐만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일상을 그대로 기록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여섯째, 동영상은 연구와 관련된 프로그램 작동 방법이나 엑셀다루는 방법을 촬영해 놓은 것이 대부분이지만 노래방에서 노는 선후배의 모습과 산책하면서 찍은 풍경 영상이 있었다. 새벽에 집으로 들어가는 길을 찍고 내 영상일기처럼 촬영한 파일도 3개정도 있었다. 사진에 비해 편집하기 힘든 동영상으로는 내 모습을 찍지 않았지만 내 나레이션이 들어간 영상은 일기장에 내 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행위와 유사하게 보인다.

3. 디지털 사진의 사회적 사용

1) 셀카와 정체성

지명 2013년 11월 19일자 <더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영어권 생활자들의 언어습관을 대변하는 옥스포드 영어사전은 올해의 단어로 스마트폰이나 웹캠으로 스스로 찍은 사진을 가리키는 'Selfie(셀피)'를 뽑았어요. 옥스포드 영어사전은 현대 영어에서 자주 쓰이는 1억 5천만 단어를 매달 모아 분석하는데, 'Selfie'의 사용이 지난 12개월 동안 17,000% 늘어났다고 합니다. 2002년 처음 쓰이기 시작한 이 단어는 2004년 사진 공유 서비스 플리커(Flickr)에서 자주 나타났고, 2012년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일상적 단어가 됐죠.¹⁾

1) <http://www.theguardian.com/books/2013/nov/19/selfie-word-of-the-year-oed-olinguito-twerk>

우리나라에서는 ‘셀카’라고 불리는 이런 사진은 흔히 “똑딱이”라고 불리는 작은 디지털 카메라와 핸드폰 카메라가 일반화됐을 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촬영한 것을 간단한 앱을 이용해 보정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바로 SNS미디어를 통해 공개할 수 있게 되면서 아주 흔해졌다고 할 수 있어요. 내 자신도 “똑딱이”에서 SNS와 아이폰에 이르기까지 여러 미디어를 통해 셀카를 찍어 왔죠.

형일 네 이야기에서도 드러나듯이 요즘은 특히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SNS 서비스가 일반화되면서 셀카가 단순히 자신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에서 벗어나 타인들에게 보여줄 자신의 모습을 만드는 기능을 하는 것 같더군요. 스마트폰의 셀카 촬영 기능은 그런 경향을 더욱 부추기는 것처럼 보인다.

지영 내 생각에는 셀카라는 것이 결국 자신의 영상을 만드는 작업인데, 그런 영상을 SNS를 통해 공개한다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identity) 문제와 밀접히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전통적 사진은 객관적 지표로서 개인을 시각적으로 구성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사진 앨범은 그의 정체성 자체일 수 있죠. 그런데 디지털 사진은 손쉬운 수정과 변형이 가능한 미디어이니까 디지털 사진으로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디지털 사진이 더 이상 지표(index)라는 기호가 아니라면 말이죠. 하지만 디지털 사진도 여전히 사진의 하나이기 때문에 셀카가 나의 존재와 관련된 정체성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내가 싸이 미니홈피에서 사진 앨범을 관리했던 경험과 아이폰을 이용해 찍은 사진들을 살펴보다보니 이런 점에 대해 명확히 생각을 정리하기 어렵더라고요.

형일 오, 이런. 갑자기 그렇게 무거운 개념들을 한꺼번에 내놓으면 정리하기가 어렵지. 하나씩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인물을 재현하는 사진은 분명 그 인물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구성한다고 볼 수 있지. 특히 사진이 내 자신의 모습을 담은 것일 경우, 자신을 대상화해 바라볼 기회를 제공하지. 이것은 바로 바르트(Barthes, 1980, pp.24~33)가 사진에 찍히면서, 또 찍힌 자신의 사진을 보면서 느낀 것이기도 하다. 바르트는 자신이 사진에 찍힌다는 것을 아는 순간 스스로 ‘포즈’를 취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바르트가 보기에 그것은 일종의 사회적 놀이(jeu social)이다. 사진들마다 항상 달라지는 자신의 이미지가 자신의 ‘자아(moi)’와 일치하기를 바라는 행동이란 것이지. 하지만 이미지와 자아는 결코 일치하지 않아. 왜냐하면 사진 찍힐 때마다 내가 ‘포즈’를 통해 만들어내는 몸은 사진에 고정되고 고착되지만 정작 ‘자아’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지. 사진이 재현하는 순간에 나는 바로 대상이 되어가는 자신을 느끼는 주체이다(Barthes, 1980, p.30). 바르트가 잘 느꼈듯이, 우리는 사진 찍는 순간에 스스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 혹은

타인이 봐 줬으면 하는 자신의 모습을 ‘포즈’로 나타내고자 한다. 마치 네가 넓은 이마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이마를 가린 ‘포즈’로 셀카를 찍는 것처럼 말이다. 사진을 통해 자신의 몸은 자아로부터 떨어져나가 하나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사진 안에서 대상이 된 몸은 내 자아와는 관계없이 타인들에 의해 마음대로 취급되고 조작될 수 있는 죽은 몸이라고 할 수 있다.

지영 2014년 4월 24일자 <타임>에 따르면, 미국 로스엔젤로스에 사는 트리아나 레이비(Triana Lavey)라는 평범한 직장 여성이 인스타그램(Instagram)이나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SNS에 업로드할 더 완벽한 셀카를 찍기 위해 광대 및 턱 성형수술을 했다고 해요²⁾. 이것은 극단적인 포즈를 취한 죽은 몸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디지털 사진은 죽은 몸을 기술적으로 쉽게 수정하고 변형시킬 수 있죠. 결국 디지털 사진 속의 나는 원래의 내 자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사진은 그 자체의 특성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재현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디지털 사진의 수가 많아진다면 오히려 진짜 정체성을 추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이월드’ 사진을 연구한 임경희(2007)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철저하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디지털 사진을 이용해 타인의 관심을 얻기 위한 이상적 자아(ideal ego)라는 의사정체성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의사정체성들로 가득 찬 미니홈피의 세계는 일종의 집단적 상상계이며 “착한 칭찬의 놀이동산”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과 ‘사이월드’를 적당히 분리시키죠. 우리가 소개팅을 나갈 때 SNS의 프로필 사진에 나온 잘 생긴 모습을 보고 실제 상대와 100% 똑같은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누군가의 페이스북 사진첩을 통해 그 사람을 알고자 한다면, 사진첩 속의 수많은 사진들을 통해 의사정체성이 아닌 진짜 정체성을 추리해 낼 수 있지 않을까요? 플리커에서는 사람들이 올린 사진들로 어떤 사건이나 장소가 재현되듯이 개인의 사진도 그 양이 많아지면 그 개인의 의사정체성이 아닌 진정한 정체성을 재현하지 않을까요?

형일 의사정체성과 진정한 정체성을 나누는 것은 단 하나의 고유한 정체성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지. 하지만 우리는 단 하나의 진짜 정체성이 있는가란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하지 않을까? 바르트의 느낌에 우리가 동감한다면, 이미 사진 자체가 ‘자아’와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예를 들어 정치인들이 보도사진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는지를 보면 사진 안에 대상화된 그들의 몸은 각 신문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특정한 의미가 부여돼 유통되는 것을 알 수 있다(박정순·정경희, 2005). 이 사진들은 디지털

2) <http://time.com/75610/woman-gets-plastic-surgery-so-she-can-look-better-in-selfies/>

기술에 의해 조작, 수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들이 정치인의 자아(혹은 진짜 정체성)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까? 게다가 바르트의 말대로 ‘자아’ 자체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말이야. 이것을 정체성 개념과 연결해 이야기해 보자면,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과정 안에서 구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 홀(Hall, 1996)이 보기에 포스트모던 사회의 주체가 가진 정체성은 항구적으로 고정돼 있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주체는 어떤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재현되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변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한 주체가 모순적이고 갈등적인 정체성들을 동시에 갖기도 한다. 즉, 고정되고 일관된 ‘자아’를 중심으로 유지되는 통일된 하나의 정체성은 발견되지 않는 것이지. 숨겨진 진짜 정체성을 발견하는 게 관건이 아니라 정체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아는 게 관건이 된다면, 사진이 디지털이라든가, 사진의 양이 많다든가 하는 것은 정체성의 구성에 있어서 그리 결정적인 것이 아니게 되지.

지영 내가 디지털 사진이 내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은 조금 수정될 필요가 있겠네요. 원래 존재하는 내 정체성이 디지털 사진에 의해 변형된다고보다는 디지털 사진의 수정과 변형을 통해 내 정체성을 손쉽게 만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낫겠어요. 어쨌든 디지털 사진의 조작용이성 덕분에 아날로그 사진보다는 디지털 사진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이 더 쉽게 수정되고 변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림은 어떨까요? 초상화같은 그림도 디지털 사진처럼 수정, 변형할 수 있죠. 즉, 실물과 닮지 않은 초상화가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그 시대에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비교적 고정돼 있지 않았나요?

형일 회화가 지배하던 시대,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푸코(Foucault)가 고전시대라고 불렀을 시대에 재현의 문제는 정체성(혹은 동일성)과 차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됐다고 할 수 있지. 즉, 사물과 그것을 재현하는 기호 사이에는 같음과 다름이 명확히 구별되는 투명한 일치관계 내지는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지. 당시에는 데카르트(Descartes)의 ‘코기토(cogito)’ 개념이 의미하듯이 인간의 생각하는 힘, 즉 이성(혹은 정신)은 인간에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동일한 존재라는 의식, 즉 정체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됐어. 사회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당시엔 신분제 사회였고 모든 사람은 행동, 말, 의식주에 이르는 모든 것을 신분에 맞게 갖춰야 했지. 개인의 정체성은 시각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회화는 개인이 가진 정체성을 재현하는 미디어였다고 할 수 있어. 초상화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왕족이나 귀족 등의 지배계급의 사람들이었기에 회화는 사회가 이상적으로 지정한 정체성을 충실히 표현하는 미디어였던 것이지. 하지만 개인이 더 이상 단일하고 고정된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현대사회에서 사진은 그것이 아날로그이든, 디

지털이든, 고정된 정체성을 재현하는 미디어가 아니라 항상 변하면서 구성되는 정체성들을 그때그때 포착하고 나아가 만들어내는 미디어라고 할 수 있어. 결국 오늘날 사진과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다원적 정체성들의 구성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영: 내가 많은 사진을 찍고 그것들을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공유하는 행위는 사진을 통해 끊임없이 다원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형일 그렇지. 사실 SNS미디어를 이용해 개인이 정체성을 구성(identity construction)하거나 자기를 소개(self-presentation)하고 노출(self-disclosure)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Wilson, Gosling, & Graham, 2012). 이런 연구들은 특히 사진과 같은 영상이 정체성 구성이나 자기소개, 자기노출과 관련된 활동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Bosch, 2011; Boyle & Johnson, 2010; Huang & Park, 2012; Hum et al., 2011; Ong et al., 2011; Rui, & Stefanone, 2013; Special & Li-Barber, 2012; Sun & Wu, 2012; Zhao, Grasmuck, & Martin, 2008).

2) 사회적 아카이브로서의 사진

지영 주형일(2005)은 포스트포토그래피 시대에 다큐멘트로서의 사진은 죽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진의 지표성이 대상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내 디지털 사진들을 내 개인에 대한 다큐멘트라고 생각합니다. 셀카로 찍은 투표 인증샷 뿐만 아니라 개인 폰으로 촬영한 모든 사진은 개인이 한 행위의 증거로서, 즉 다큐멘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다시 말해, 스마트폰으로 인해 1인 1카메라 시대에 넘쳐나는 셀카와 디지털사진은 스스로 촬영하는 일종의 개인사 다큐멘터리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형일 우선 다큐멘트와 다큐멘터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다큐멘트는 증거로서 기능하는 문서를 의미하는 반면 다큐멘터리는 사회적, 문화적 의미가 부여된 주관적 서사물이다. 포스트포토그래피 시대의 디지털사진도 여전히 다큐멘트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 증명사진, 여권사진, 과학적 관찰 사진 등 수많은 사진들이 다큐멘트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것의 존재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사진이 다큐멘트라는 일반적 믿음을 강화한다. 하지만 주형일(2012)이 주장하듯이, 증거로서의 사진의 의미는 그 영상이 사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정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진이기 때문에 다큐멘트이고 다큐멘트의 집합이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라고 이해하는 것은 너무 단순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SNS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사진을 분류하고 축적해가는 경우, 이 사진들은 단순히 증

거로서의 다큐먼트가 아니라 동료들과 공유하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다큐멘터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SNS미디어에 축적된 사진들은 일반적으로 타인과 공유하면서 내 삶을 이야기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SNS미디어에서 사진을 이용해 삶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간다고 볼 수 있지만 증거로서 다큐먼트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쉽게 말하자면, 미니홈피나 페이스북에서 내 일상을 촬영한 사진들은 내 삶을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그 사진들이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

지영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사진은 다큐멘터리는 되지만 나의 삶이 실제로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페이스북’의 많은 사진들이 내가 여기 있었다, 이것을 먹었다, 이것을 보았다 등을 증명하는 서류 역할을 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 사진들은 ‘좋아요’나 댓글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다큐먼트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형일 그것은 사회적 인정이라기보다는 이야기 과정에의 참여라고 할 수 있다. SNS미디어의 사진들은 내 삶이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친구들의 동참에 힘입어 내 삶을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보여주는 재료인 셈이지. 부르디외(Bourdieu, 1965/2004)가 지적했듯이 아날로그 사진 시대에 사진은 결혼식이나 첫영성체와 같은 특별한 행사에 전문사진가에 의해 촬영돼 가족의 결속 등을 보여주고 확인하는 다큐먼트처럼 이용됐다. 그런데 이처럼 전문사진가에 의해 제작된 사진들을 액자, 앨범의 형태로 만들어 친지들이 함께 모여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사진이 단순한 다큐먼트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만드는 다큐멘터리의 재료로서 기능하도록 만드는 장치였다고 할 수 있어.

사진이 디지털 기술과 만나면서 전문사진가의 지위와 촬영가치가 있는 사건의 성격에 큰 변화가 일어났지. 누구나 쉽게 대량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전문사진가를 고용할 필요성이 거의 없어진 동시에 일상의 모든 것들이 촬영가치가 있는 것이 됐다. 네가 지지분한 방이나 나뭇잎, 하늘을 사진으로 찍는 것처럼 말이다. 심지어는 메모를 대신해 사진을 찍기도 했지? 그리고 그 사진들은 결혼이나 돌잔치, 칠순잔치 사진처럼 액자나 앨범에 담겨 삶의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기념하는 다큐먼트에 머물지 않고 SNS미디어를 통해 친구들과 공유되고 댓글들을 통해 이야기됨으로써 다큐멘터리를 구성하게 됐다. 액자와 앨범을 보며 답소를 나누던 작은 모임의 자리를 SNS 미디어가 대체한 것이지.

지영 굳(Good, 2013)은 개인의 다큐먼트들을 모으고 정리한다는 점에서 아날로그 시대의 스크랩북과 디지털 시대의 SNS미디어는 모두 동일한 개인적 미디어 아카이브의 기능을

한다고 주장했어요. 다큐멘터리와 관련해서 사진은 다큐멘트라기보다 아카이브로 이해되는 것이 더 좋겠군요.

형일 좋은 지적이다. 다큐멘트의 일차적 목적이 뭔가를 증명하는 것이라면 아카이브는 개인이나 조직의 활동기간 동안 축적된 정보들로서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이지. 네 이야기를 보더라도 너는 싸이에 대해 네 “삶의 새로운 기록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리고 페이스북 이용에 대해서는 “온라인에 나의 기록을 남기고 친구들과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아이폰 사진과 관련해서는 “젊고 예쁜 모습뿐만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일상을 그대로 기록하고 싶은 욕망”과 “학창시절에 일기나 쪽지를 보관하는 습관의 연장선상”에 대해 말하고 있지. 결국 너는 디지털 사진행위를 통해 네 삶의 아카이브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야.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축적되는 사진의 양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아카이브로서의 사진의 사회적 기능은 크게 확장되고 있다고 할 수 것이다. 왜냐하면 SNS미디어를 통해서 공유 행위가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SNS미디어의 사진들은 단지 개인적인 삶의 다큐멘트만으로 머물지 않고 공유 행위를 통해 엄밀한 의미에서의 사회적 아카이브가 됐다고 생각해. 맥쿼이어(McQuire, 2013)의 말대로 디지털 시대의 사진 아카이브는 지하저장소에 정돈된 채 먼지가 쌓여가는 아날로그 아카이브와는 달리 네트워크 안에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유통되고 이용되는 능동적 속성을 갖고 있지. SNS미디어의 사진은 끊임없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는 아카이브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네가 미니홈피나 페이스북 클럽에 업로드하고 친구들과 공유한 디지털 사진들도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아카이브처럼 기능하고 있다.

4. 카메라와 나의 만남

1) 사진행위의 즐거움

지영 흔히 사진을 찍는 주체와 사진에 찍히는 대상은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디지털 셀카 행위에서 찍는 주체와 찍히는 대상 사이의 사회적 권력관계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아이폰에 저장된 내가 나온 사진(406개) 중에 237개가 내가 직접 혼자 찍은 셀카거든요. 이렇게 셀카를 찍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순수하게 진짜 나의 모습을 남기고 싶어서. 둘째, 혹시 찍다가 진짜 괜찮게 나온 사진이 있으면 트위터나 페이스북 프로파일 사진으로 쓰려고. 김예란·권정민(2008)이 말한 것처럼 단체사진에 찍

힐 표정을 연습하는 용으로 찍기도 해요. 가끔 사진첩을 보면서 남기기 싫은 나의 모습을 담은 사진은 혹시라도 누가 볼지 모르니 지우기도 하죠.

형일 사진에서 촬영 주체와 대상을 구분하고 촬영 주체가 대상에 대해 권력적 우위를 갖는다고 보는 것은 근대적 관점이다. 근대적 관점에 따르면 사진을 통해 주체는 대상을 관찰, 분석하고 나아가 소유, 착취함으로써 대상을 지배한다(Berger, 1972/1995). 하지만 주체와 대상의 명확한 분리를 바탕으로 주체가 대상을 일방적으로 지배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진의 문제는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아마도 셀카는 이 문제에 접근하는데 유용한 힌트를 제공하는 재미있는 현상이 될 것 같다. 셀카에서 주체와 대상은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다. 주체가 곧 대상인 것이다. 나는 촬영하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찍히는 대상이다. 일반적인 촬영 상황에서는 주체가 대상의 개입과 간섭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알맞은 영상을 역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네 친구가 사진 촬영을 당할 때 항상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그녀의 영상이 너에 의해 어떤 모습으로 결정될지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권력은 촬영 주체에게 집중돼 있는 것이지.

반면 셀카에서 나는 촬영 주체이자 대상이다. 나는 카메라를 내 얼굴에 들이대고 각도를 조정하면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나는 또한 가능한 예쁘고 멋지게 내 얼굴이 나올 수 있도록 표정과 자세를 바꿔가며 촬영하는 나에게 저항하며 개입한다. 그리고 촬영된 결과물은 즉시 주체와 대상의 합의 하에 보관과 폐기 여부가 결정된다. 사진을 찍고자 했던 주체로서의 나의 의도와 사진에 찍히고자하는 대상으로서의 나의 확고한 생각이 만나면서 짧으면서도 복잡한 내면적 갈등과 협상을 거쳐 최종 사진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사람들이 셀카를 좋아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들은 대상을 지배하는 주체의 쾌감과 주체에 저항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대상의 즐거움이라는 이중의 쾌락을 셀카 촬영을 통해 경험한다. 이것은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다. 실제로 네 이야기를 보면 너는 셀카에 대해서 “얼굴만 예쁘게 찍는 셀카를 핸드폰으로 찍을 수는 있었지만 남에게 보여줄 자신은 없었던 것 같다”거나 “이마가 넓어서 앞머리를 올리는 것이 약간 콤플렉스였는데 셀카에는 특히 이마를 잘리게 찍은 사진들이 많았”다고 말하고 있지. 이것은 결국 셀카라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추구되는 어떤 즐거움 이전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추구되는 즐거움과 더 깊이 관련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가 내 자신의 영상을 통제하면서 얻는 즐거움이 셀카가 주는 즐거움의 핵심일 수 있다는 것이지.

지영 이미나 외(2012)는 한국의 투표인증샷을 자기표현문제와 관련해 연구했는데요. 앞에서 언급된 많은 연구들에서도 나타나듯이 사실 우리가 온라인에 올리는 모든 사진들이 모두 일종의 자기표현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먹었다, 내가 이곳에 갔

다, 내가 이것을 했다 등등을 사진을 통해 네트워크 안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죠. 쇼핑물의 제품 구매 후기에 사용되는 사진들도 있잖아요. 사실 사진을 찍어서 남기고 싶어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는 욕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음식 먹기 전에 사진 찍고, 여행가서도 즐기기보다는 사진으로 남기는 것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면 좀 불편해요. 본질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결국 삶 자체에 충실하기보다는 삶을 꾸며서 보여 주는데 열중하는 것이잖아요.

형일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가장 일차적인 심리적 이유는 아마도 자신이 눈으로 보는 것을 기록해 남기고 싶다는 욕망일 것이다. 네가 경험했듯이 예쁘고 멋진 것을 봤을 때 그 찰나적 시각적 경험을 나중에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영상으로 보존해 두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가진 일종의 소유욕이다. 하지만 이런 욕망으로 SNS미디어를 가득 채우는 그 수많은 인증샷들의 존재를 설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런 인증샷들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증샷의 급증은 디지털 카메라와 연계된 SNS미디어의 일상적 사용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SNS미디어는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증샷이 SNS미디어의 일상적 사용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인증샷의 생산이 일차적으로 촬영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증샷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찍는 것이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인가? 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내가 보는 것, 읽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만나는 사람, 있는 곳, 즉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모든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인증샷을 찍어 공개한다. 왜 보여주고 싶어 할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과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런 이유들이 아니라 그런 행위가 이뤄지는 과정과 그것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효과다. SNS에 수많은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행위는 결국 나의 삶을 시각적으로 구성해 보여줌으로써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낳는다. 인증샷들은 삶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한 아카이브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구성해 남들에게 보여주는 데 이토록 열중한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우리의 정체성이 고정된 확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 연령, 문화의 차이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셀카와 인증샷들을 찍고 SNS를 통해 공개한다. 이것을 그들이 자신의 삶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삶의 외연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만 체험하고 즐기는 삶만큼이나 사진을 통해 남들과 공유하는 삶도 자기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이지.

지영 사진을 찍고 그것을 그때그때 보여주는 사람이 자기 정체성 구성이나 삶의 외연을 확장하는 경쟁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페이스북에 여행 사진을 많이 올린 친구보다 더 자주 여행을 다니는데도 단지 나는 사진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도 왠지 그 친구의 삶이 더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삶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묘한 불안감을 줘요. “더 많이 남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같은 것이요. 흔히 “남는 건 사진이다”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요즘엔 “남는 건 오직 업로드돼 공유된 사진이다”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형일 포스터(Foster, 2009)가 잘 지적했듯이 디지털 사진은 여행과 일상의 경계선을 지워 버렸지. 내가 찍어 보관한 사진들을 보더라도 뉴욕과 자취방, 학교, 오가는 길들을 찍은 사진들이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갖고 기록, 보존되고 있다. 결국 사진으로 찍힌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공유된 사진이 많을수록 삶이 풍요로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 그런데 “남는 건 업로드돼 공유된 사진”이라고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에서 사진이 얼마나 쉽게 삭제될 수 있는지, 또 끊임없이 업로드되는 데이터들에 의해 얼마나 쉽게 과거의 사진들이 시야에서 사라지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디지털 사진이 과연 남는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들어. 사라지는 것을 기록해서 남기는 사진이 이제 가장 사라지기 쉬운 것이 된 역설적 상황에 놓였다고나 할까? 하지만 동시에 디지털 사진은 그것이 공유될 때는 사회적 아카이브로서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속성도 갖지. 디지털 사진은 찰나적 영구성이란 모순적 속성을 갖고 있는 셈이야.

2) 인간과 기계의 네트워크

지영 내가 SNS미디어에 사진 올리는 것을 꺼리는 이유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또 셀카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꾸며내는 것이 “된장녀”가 하는 가식적 행위라는 사회적인 통념도 이유 중의 하나이죠. 반면에 사진 업로드를 하고자 하는 욕구는 조국이나 진중권과의 맞팔을 위한 투표인증샷에서 보이듯이 사회적 인정을 받거나 인맥이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이것은 디지털 미디어에서의 사진 이용에 대해 내가 부여한 가치와 의미가 사실은 사회적 시선이나 규범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겠죠. 김예란·권정민(2008)의 주장대로 디지털 사진의 이용에도 지배적 사회질서의 영향력이 그대로 미치고 있는 셈이죠.

형일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결정론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디지털 사진의 이용에 있어서 행위자의 사회적으로 형성된 편견이 가진 영향력이 있겠지만 동시에 디지털 기술이 그런 편견을 조장하거나 맞서기도 하거든. 예를 들

어, 너는 내 컴퓨터를 처음 가졌을 때, 싸이월드를 알게 됐을 때, ‘톡딱이’를 가졌을 때,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었을 때, 아이폰을 갖게 됐을 때 등을 네 삶에서 중요한 사건처럼 기술하고 있다. 그것들이 네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말하고 있어.

너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이 떠오른다. ANT는 기술과 인간을 모두 행위자로 본다(Latour, 2005). 기술이나 기계를 단순히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과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작용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행위자로 보는 것이다. 라투르(Latour, 1991)가 인간행위자와 비인간행위자들이 어떻게 연결, 대체되면서 코닥 카메라와 아마추어 사진시장이 만들어졌는지를 분석한 것처럼 ANT가 주목하는 것은 기술이 사회에 의해 영향을 받느냐 혹은 사회관계가 기술에 의해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인간이든 비인간이든)이 어떻게 연결돼 있으며 그들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확장되거나 수정되느냐 하는 것이다. ANT에서는 현상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항상 변하는 이야기로 본다.

이와 관련해 라센(Larsen, 2008)이 photography와 photograph를 구분한 것이 의미가 있다. photograph가 눈에 보이는 영상으로서의 사진이라면 photography는 영상의 생산, 이동, 소비를 포함하는 실천으로서의 사진행위로서 “혼성된, 구현된 퍼포먼스”이다(Larsen, 2008, p.144). 너의 이야기에서 디지털 카메라, 싸이월드, 페이스북, 아이폰은 비인간 행위자로서 너와 네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네 행동이나 사회적 편견들과 연결되거나 대체된다. 모든 행위자들은 사진행위(photography)라고 요약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 안에서 함께 진화한다.

지영 싸이월드가 아이폰이 내 사진이나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쳤거나 내 욕구나 사회적 편견이 싸이월드가 아이폰의 사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식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것인가요?

형일 라투르(Latour, 1991)가 했듯이 네 이야기의 문장들을 통합체(syntagm)로 보고 각 통합체 내에서 인간행위자와 비인간행위자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대체되는지를 간단히 살펴 보도록 하자. 네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한 통합체들로 구성돼 있다. (지영/대학입학/내 컴퓨터), (내 컴퓨터/싸이월드), (싸이월드/내 사진), (싸이월드/사진첩과 방명록/동기들과 선후배), (컴퓨터/소형디지털카메라/싸이월드), (크림트, 고흐, 달리의 그림/인터넷), (언니/디지털카메라), (언니/톡딱이), (톡딱이/2GB), (싸이월드 사진첩/인터넷), (싸이월드/공유하는 사진일기), (싸이월드/비밀폴더/첫사랑), (폰카메라/셀카), (뉴욕 유학계획/사진관에서 사진 인화), (가족, 친구들의 요구/뉴욕 생활사진/싸이월드), (저널리즘수업/DSLR(-) 소형디카), (스마트폰열광/트위터, 페이스북), (귀국/트위터 계정/프로파일사진), (진중권, 조국과의 맞팔/투표인증샷), (교환학생/미국친구/페이스북), (여고동창

생들/페이스북/클럽), (SNS/자기홍보/불안감), (아이폰/셀카), (아이폰/정보기록), (아이폰/화면캡처), (아이폰/카톡/친구사진), (아이폰/일상사진), (아이폰/동영상).

이 이야기의 행위자들은 너와 언니, 친구들과 같은 인간행위자 외에도 컴퓨터, 싸이월드, 비밀폴더, 일상사진,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아이폰과 같은 많은 비인간행위자들로 구성돼 있다. 너는 이야기 안에서 고정된 행위자로 머물지 않아. 네가 할 수 있거나 하고 싶은 것은 이야기 속에서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해 간다. 디지털 카메라를 '똑딱이'나 아이폰이 대체하기도 하고 싸이월드를 페이스북이 대체하지. 네 컴퓨터와 싸이월드, 디지털카메라로 형성된 네트워크가 아이폰과 페이스북, 트위터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로 변해간다. 네가 대학입학으로 자신의 컴퓨터를 갖게 된 사건이후 아이폰에 의해 동영상 기록, 저장되는 사건에 이르기까지 어떤 항구적으로 고정된 행위자나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 연결되고 대체되고 수정되는 연속적인 네트워크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지. 어떤 맥락이나 상황이 특정한 기계나 기술을 사용하게 만든다거나 특정한 기술이 어떤 상황을 만든다기보다는 너와 네 가족, 친구들과 같은 인간행위자들과 카메라,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비인간행위자들이 서로 연결되고 대체되는 네트워크의 형성과 변화 자체가 상황이자 맥락이다.

지영 기계나 기술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행위자의 하나이고 그런 다양하고 이질적인 행위자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내 사진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내 사진행위의 인과관계(기술적이든, 사회적이든)를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형일 우리는 사회과학자로서 현상을 단순화해 인과관계를 밝히고 설명하고자 하는 환원론적 욕구에 사로잡히기 쉽다.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일상의 문화는 단순한 인과론적 설명을 통해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현상이 설명가능하다는 것은 다음에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 현상이 일종의 폐쇄된 체계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문화현상은 폐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지. 그래서 문화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질적 방법은 현상의 설명을 목표로 하지 않아. ANT의 경우도 설명이 아니라 기술(description)에 방점을 둔 방법이다. 질적 연구는 대개 현상을 풍부히 기술함으로써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결론을 대신해

지영 그럼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무엇을 얻은 것인가요?

형일 일단 나와 너의 디지털 사진행위가 다르더구나. 내 경우에는 SNS미디어에 내 개인적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공유하는 일을 별로 하지 않고 폰카메라를 이용해 사진을 찍어 저장하는 일도 거의 하지 않는다.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한 사진 아카이브 구축 작업을 사실상 하지 않는 것이지. 나에게 있어서 사진행위는 필름과 디지털미디어라는 기술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실상 기념을 위한 다큐멘트를 제작하는 동일한 의례적 행위로 머문다. 그렇기에 디지털사진을 통해 내 정체성을 구성한다든가 내 삶의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지.

이런 차이가 4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가진 성과 연령이란 변인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없다. 물론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도와 친밀도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는 청년들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성이나 문화의 차이에 따라 SNS를 통해 사진을 공개하고 공유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도 알려져 있다(Rui & Stefanone, 2013). 하지만 내가 주목하는 것은 성, 문화, 연령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미디어를 접하는 모든 집단에서 디지털 사진행위가 발견된다는 사실이지. 내 또래들 중에도 페이스북에 자신의 시시콜콜한 일상 사진들을 계속 올리는 사람들이 꽤 있고 대학생들 중에서도 SNS미디어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 연령이나 성에 관계없이 디지털 사진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따라서 네 이야기는 20대 여성이란 특정 집단의 디지털 사진행위에 한정되는 특징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성과 연령에 관계없이 현재의 디지털 사진행위가 갖는 일반적 특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나는 사실 이 연구와 관련해 내 강의를 듣는 대학생들로부터 왜 셀카를 찍는지, 왜 SNS에 자신의 사진을 업로드하는지에 대해 기술하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여러 차례 받았다. 자신의 현재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기 위해(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멀리 있는 친구(애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내가 이런 사람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게 나올 때까지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심심한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기 위해 등 여러 이유들이 드러나더군. 셀카를 찍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었어. 결국 셀카와 SNS에서의 사진 업로드는 자신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내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알리고 공유함으로써 인간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의 결과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과정에서 너처럼 사진을 통해 만들어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사진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의 진위에 대해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내가 특별히 디지털 사진행위에 열중하지 않는 것도 어쩌면 그런 고민들에 대한 선제적 방어행

위일 수도 있을 거야. 사진으로 내 모습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행위가 갖는 부담감을 미리 회피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네 이야기를 듣고 너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내가 하지 않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디지털 사진행위의 특성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었어. 사진을 다큐먼트가 아닌 아카이브로 이해하게 된 것, 그리고 특히 사진행위에 수반되는 다양한 기계와 기술들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행위자와 동등한 행위자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이 연구의 유익한 결과물이라 생각한다. 너는 무엇을 얻었지?

지영 지금까지 일상적 개인적 차원의 행위로 생각해오던 사진행위의 사회문화적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의 사회과학연구에서는 많이 이용되고 있진 않는 외국의 자기민속지학 연구(Ellis & Bochner, 2006; Anderson, 2006)들을 공부하고 적절한 주제를 통해 직접 연구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특히 자기서술의 치료적 가치에 대해서 다룬 연구(Kiesinger, 2002)처럼 20대 여성으로서 디지털 사진의 이용 속에서 느꼈던 편견과 개인의 디지털 사용 과정을 깊게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이해하고 학술적으로 설명해보며 마음이 후련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나의 싸이 사진첩 분석을 통해 개인의 디지털 아카이브의 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을 때 '싸이질'이라고 조금은 부정적으로 사회에 인식되어오던 사진행위에 대해 이해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교수님과 연구를 진행하면서 자기민속지학적 방법론의 변형가능성과 질적 연구방법론으로서의 장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셀카와 SNS 사진공유를 통해 보여주는 나의 모습의 진실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정체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것도 그 때문이었죠. 보통 셀카를 찍으면 나를 찍는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사진 안에서 대상이 된 나의 몸은 타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죽은 몸, 즉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포즈를 취하는 대부분의 동작과 세팅은 사회가 원하는 나의 모습 혹은 사회에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을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순간순간을 인증샷으로 보여줘야 나의 정체성이 구성되는 현실은 조금 불안하고 슬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20세기에는 한 장의 자화상 혹은 증명사진을 남겼다면 21세기에는 백장의 셀카 사진을 사회적 디지털 아카이브로 갖게 된다는 점에서 사진행위의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SNS 이용으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강력한 사진 공유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사진행위의 의미는 매우 다양할 것 같습니다.

또한 ANT에서 기계와 기술을 인간 행위자와 같은 동등한 행위자로 봤듯이, 나의 디지털 사진행위는 컴퓨터, 싸이월드, 아이폰, 트위터과 같은 기술의 등장, 그리고 일련의 개

인적 사건들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전개돼 왔다고 할 수 있어요. 계속 등장하는 많은 디지털 기술에 따라 인간의 사진행위는 다양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친구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종류나, 핀터레스터(Pinterest.com), 인스타그램 이용 여부에 따라 사진행위가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거든요.

나의 외장하드와 SNS 사진첩에 조금씩 늘어가는 사진들을 보면서 이런 차이를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의 측면에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는 사진행위의 차이가 10년, 20년 후 우리 세대의 사진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해져요. 사진행위에 따른 개인 간의 디지털 재현 차이(digital visual representation gap)와 같은 개념이 나타나진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 김예란·권정민 (2008). 휴대폰 영상행위와 정체성 형성에 관한 문화적 접근. 『언론과 사회』, 16권 2호, 74~106.
- 박정순·정경희 (2005). 보도사진 이미지의 정치적 편향성: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보도사진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3, 73~97.
- 이미나·서희정·김현아 (2012). 투표인증샷 분석: 자기표현과 설득의 커뮤니케이션. 『한국언론학보』, 56권 6호, 246~277.
- 임경희(2007). 디지털 사진과 아이덴티티의 분열. 『영상문화』, 12, 22~31.
- 주형일(2005). 포스트포토그래피 시대의 사진을 통한 현실 재현의 문제. 『언론과 사회』, 13권 3호, 37~70.
- 주형일 (2012). 이미지의 과잉과 실재. 『커뮤니케이션 이론』, 8권 1호, 213~244.
- Anderson, L. (2006). Analytic autoethnography. *Journal of contemporary ethnography*, 35(4), 373~395.
- Barthes, R. (1980). *La chambre claire*. Paris: Editions du Seuil.
- Berger, J. (1972). *Ways of Seeing*. 하태진 역 (1995). 『어떻게 볼 것인가』. 현대미술사.
- Bosch, T. (2011). Young women and 'technologies of the self': Social networking and sexualities. *Agenda: Empowering women for gender equity*, 25(4), 75~86.
- Bourdieu, P. (1965). *Un art moyen: Essai sur les usages sociaux de la photographique*. Paris: Editions de Minuit. 주형일 역(2004). 『중간예술』. 현실문화연구. 231~267.
- Boyle, K. & Johnson, Th. J. (2010). MySpace is your space? Examining self-presentation of MySpace user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6, 1392~1399.
- Ellis, C. S., & Bochner, A. P. (2006). Analyzing Analytic Autoethnography An Autopsy. *Journal of*

- Contemporary Ethnography*, 35(4), 429~449.
- Foster, M. D. (2009). What time is this picture? Cameraphones, tourism, and the digital gaze in Japan. *Social Identities: Journal for the Study of Race, Nation and Culture*, 15(3), 351~372.
- Good, K. D. (2013). From scrapbook to Facebook: A history of personal media assemblage and archives. *New media & Society*, 15(4), 557~573.
- Hall, S. (1996) The questions of cultural identity. In: Hall, S., Held, D., Hubert, D. & Thompson, K., *Modernity: An Introduction to Modern Societies*. Oxford: Blackwell. 596~632.
- Hum, N. J. et al. (2011).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A content analysis of Facebook profile photograph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7, 1828~1833.
- Huang, Ch. M. & Park, D. (2012). Cultural influences on Facebook photograph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8(3), 334~343.
- Kiesinger, C. E. (2002). My father's shoes: The therapeutic value of narrative reframing. *Ethnographically speaking: Autoethnography, literature, and aesthetics*, 95~114.
- Larsen, J. (2008). Practices and Flows of Digital Photography: An Ethnographic Framework. *Mobilities*, 3(1), 141~160.
- Latour, B. (1991) Technology is society made durable. in Law, J. (Ed.), *A Sociology of Monsters: Essays on Power, Technology and Domination*. London: Routledge, 103~131.
- Latour, B. (2005). *Reassembl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cQuire, S. (2013). Photography's afterlife: Documentary images and the operational archive, *Journal of Material Culture*, 18(3), 223~241
- Ong, E. Y. L. et al. (2011). Narcissism, extraversion and adolescents' self-presentation on Facebook.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 180~185.
- Rui, J. & Stefanone, M. A. (2013). Strategic self-presentation online: A cross-cultural stud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9, 110~118.
- Special, W. P. & Li-Barber, K. T. (2012). Self-disclosure and student satisfaction with Facebook.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8, 624~630.
- Sun, T. and Wu, G. (2012). Traits, Predictors, and Consequences of Facebook Self-Presentation.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30(4), 419~433.
- Wilson, R. E., Gosling, S. D. & Graham, L. T. (2012). A Review of Facebook Research in the Social Science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7(3), 203~220.
- Zhao, S., Grasmuck, S., Martin, J. (2008). Identity construction on Facebook: Digital empowerment in anchored relationship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4, 1816~1836.

How to Understand the Digital Photography

A Cooperative Autoethnographic Study

Jiyoung Kim

Ph. D candidate, Dept. of Media and Communication, Yeungnam University

Hyungil Joo

Professor, Dept. of Media and Communication, Yeungnam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social and cultural implication of the activities of taking 'selfies' and the use of Social Network Service(SNS)s through the personal story of a 20s female researcher. She analyzes her own digital photography activities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use of Cyworld photo albums for three years and the use of pictures in iPhone album for fifteen months. The other researcher(40s male) cooperates to answer the questions about how to understand the digital photography activities. We understand the digital photography activities including digital cameras, social network services and smart phones as acts of personal identity configuration and acts of making the personal documentary. As a result, digital photos are used more for archive purpose rather than for document purpose. Also, we found that the digital photography activities can be understood as the interactions between human and non-human actors in the perspective of Actor-Network Theory (ANT).

KEYWORDS selfie, archive, identity, documentary, Actor-Network Theory(ANT)